

도약하는

서광우유

고산지 개발의
고성공적인 모델 —「서광목장」



(주) 서광목장

1. 연혁

1961년 창업한 주식회사 서광은 섬유산업의 선두주자로 그동안 섬유산업에 주력하여 유럽 및 미국의 30여개국에 의류를 수출하여 왔으며, 국내에서는 라코스테, 까뜨리네뜨, 행텐, 디크라쎄 등의 유명 브랜드로 생산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다.

1975년 정부의 축산진흥정책에 맞춰 대단위 목장을 조성하고자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에 해발 400m의 버려진 산지 200만평을 구입하여 10여년간 지속적인 투자로 초지 180만평을 조성하고 미국, 캐나다, 호주등지에서 우량우유를 도입하여 서광목장을 조성한 이래 1,000여 마리의 개량우유에서 일일 7,000kg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

서광목장 조성이 완료된 후, 서광우유는 1985년 12월에 고 장학섭 명예회장의 유지로 지금의 논산공장(구 유노우유)를 인수하여 주식회사 서광 유가공사사업본부를 신설함으로써 본격적인 유가공업에 진출하게 되었다.

유가공 사업본부는 유가공공장(논산), 유가공 영업부(대전), 서광목장(영암)으로 조직되어 각 개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2. 제품소개

1985년 논산공장 인수 초기에는 시유와 가공유

인 초코우유만을 생산하였으나 1987년 5월에 유산균음료인 자두맛과 파인애플맛을 개발하고 그해 7월에 발효유인 서광요구르트를 개발, 시판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히게 되었는데 발효유는 24시간 단시간의 발효로 전혀 안정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시유는 호남의 명산인 월출산 줄기의 서광목장에서 우수한 목초와 천혜의 석간수를 먹고 자라는 유우에서 생산된 신선한 원유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자랑이다.

3. 후생복지 및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년 1회 전사원에 대하여 그룹 산하 쥘리아 연수원에서 교양교육을 실시하여 노사간의 인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입사 1년이상 전사원의 자녀에 대하여 학자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고, 업무용 차량 외에 간부사원(과장급 이상)에게 자가용 차량의 운영비를 보조하여 사원의 사기를 북돋우고 있다.

또한 회사내에 사우회, 여우회 및 산악회, 낚시회 등이 운영되고 있고, 기타 일반 후생복지 편의가 회사에서 용이하게 제공되고 있다.

서광목장은 전국의 낙농가와 축산관련 학교, 각 기관의 견학 및 실습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특히 서광우유에 납유하는 농가에 개량우유를 분양 입식하였으며, 향후 계속적으로 분양을 실시하여 실제 낙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4. 향후 계획

유가공사업을 시작한 것이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전사원은 그동안의 경험에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여 유가공사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축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의 식생활 개선에 의한 보건향상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다음과 같은 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첫째, 납유농가의 영세성을 개선하고 보다 좋은 원유를 집유하기 위하여 농가당 집유량을 현재 일일 평균 100kg에서 1차로 200kg선 까지 증대되도록 지원과 지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집유방법

을 통 집유에서 탱크로리 집유로 100% 전환할 계획이다.

둘째, 무결점,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당일집유, 당일생산의 원칙을 지키면서 품질강화는 물론 다양한 제품을 개발, 시판할 예정으로 이를 위하여 현 공장옆에 이미 확보한 부지에 제2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셋째, 현재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에 조성된 판매지역을 점차 전국으로 넓힐 예정이며, 아울러 판매지역내의 판매량을 배가시킬 계획으로 이는 무리하지 않는 마라톤의 정신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